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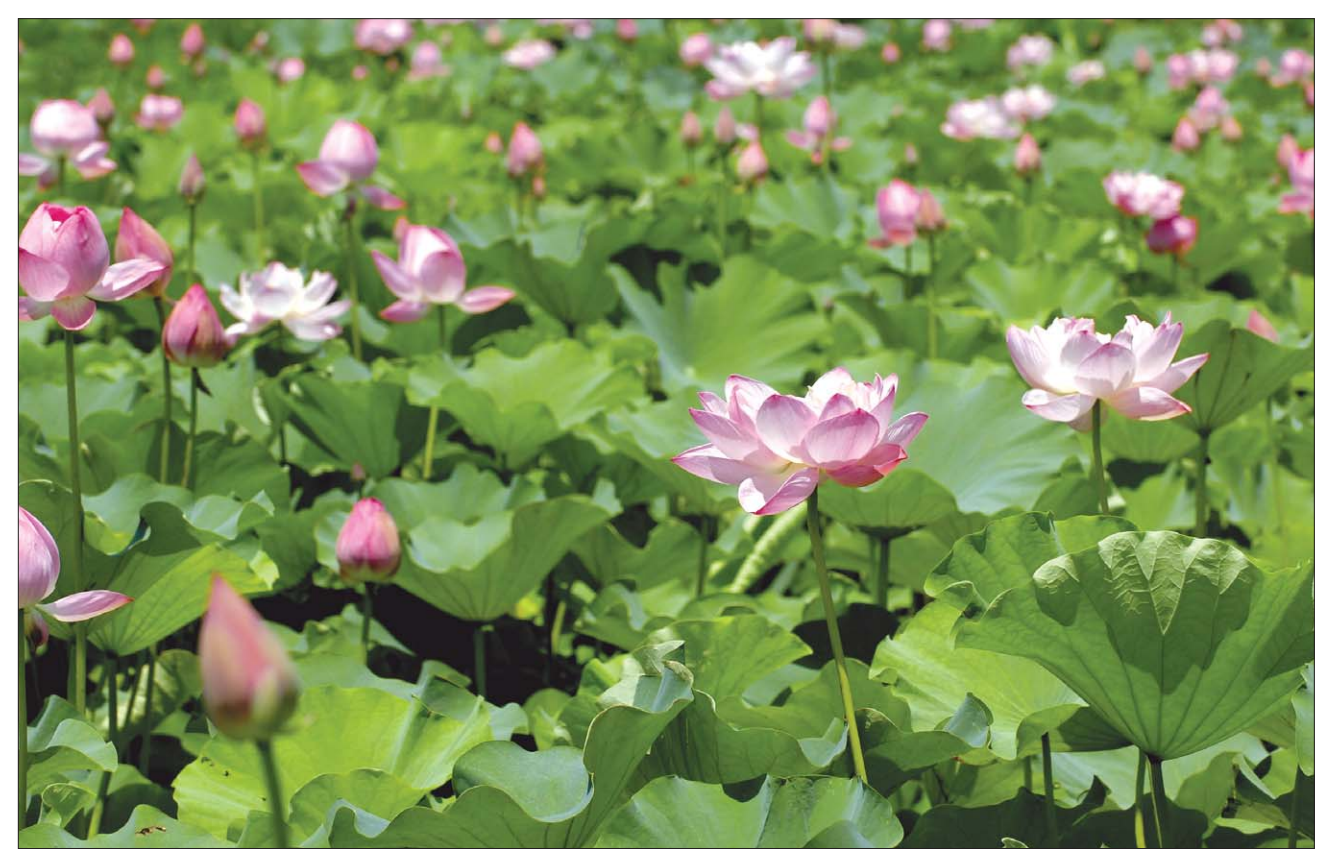
 <b>“화마로부터 목불 지키자”</b> 4 비상하강하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b>“사람 웃음이 가장 예쁜 꽃”</b> 5 도반의 향기-이웃돕기 앞장 이은주씨	 <b>“해·결제 없이 순간결사를”</b> 7 선자식·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	 <b>“자비사상으로 불국정토를”</b> 9 부산-부산불교련 새회장 정여 스님
--	---	---	--

## 한국문학 ‘세계로’

10주년 맞은 만해축전 8월 11일부터  
시인학교·경연대회 시상식 등 ‘풍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문학의 질적 양적 팽창에 혁혁한 기여를 해 온 만해 축전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자유와 평화로 대변되는 만해 정신의 세계화를 착실하게 주도해 온 만해 축전의 열 번째 무대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마련된다.  
문화와 문학 불교 등을 내용으로 폭넓게 전개되어 온 만해 축제는 해마다 인류에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바탕의 잔치로 열려 왔다. 올해의 만해축전은 ‘건국 60주년 현대시 100년 만해축전 1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아 더욱 뜻 깊은 잔치로 펼쳐진다.  
이번 축전에서 주목되는 행사는 단연 만해학술원이 주관하는 ‘만해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 디지털 만해축전 축하 공연 등 볼거리로 채워진다.  
특히 10건에 이르는 대형 심포지엄은 10주년을 맞은 만해축전의 내적 성장의 표상이다. 축전 기간에는 △시조문학 심포지엄1(한국시가학회, 주제:고전시가와 민족) △종교자유정책 심포지엄(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제: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 △시조문학 심포지엄2(경남시조시인협회, 주제:현대시조의 발전방향) △현대시 심포지엄(시와 세계, 주제:현대시와 선시의 회통) △국제문학 심포지엄(창작21작가회, 주제:미안마 불교사상과 문학의 전통과 현대) △현대문학 심포지엄(현대불교신문협회, 주제:불교철학과 현대문학) △현대문학 심포지엄(한국작가회의, 주제:한국의 현대문학과 불교) △현대문학 심포지엄(시와 시학사, 주제:한국시와 외국시의 관계) 등 다채로운 학술 행사가 열린다. **일연태 기자**  
 ◆만해축전 10년 평가와 전망-12면  
 ◆만해축전 10년 영광의 얼굴들-13면



사방(十方)은 지금 연꽃세상  
부처님이 설법하신 들어보이셨던 연꽃. 전국에서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6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7월 18일 충남 부여군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열렸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운 연꽃들이 세상을 연꽃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8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종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 맑고 향기로운 ‘연꽃의 유혹’

무더위가 기승부리는 요즘, 한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연꽃축제가 피서객들을 설레게 한다.  
7월 5일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부여 궁남지와 태안 청산수목원에서, 19일에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축제 막이 올랐다. 무안 화산백련지와 고양 호수공원에서는 25일부터 연꽃축제를 시작하고 광릉 봉선사와 신촌 봉원사도 26일과 31일 각각 연꽃축제를 펼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전국 1시부터는 우리각각 한마당과 노래잔치가 펼쳐진다. 신촌 봉원사주지 환우도 7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연꽃축제를 연다.  
연꽃축제의 포교효과와 관련, 봉선사 인목 스님은 “사찰이 마련한 연꽃축제는 포교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축제에서 펼쳐진 불교문화공연에서 얻어지는 불교 대중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 안심(安心)을 얻는다. 연꽃이 그들에게 전한 편안함을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높다. **조동성 기자**

## “日 독도영유권 명기 참회하라”

**종단협·보림회 규탄 성명**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새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 데 대해 불교계가 즉각적인 시정과 참회를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는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행위는 역사왜곡과 군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공개 참회하라”고 밝혔다.  
윤안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해찬)도 7월 18일 ‘양심마저 저버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다시는 일본의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진각종은 7월 28-30일 울릉도 일대에서 회당문화축제를 열고 독도 사진전, YB와 함께 하는 독도 아리랑 콘서트, 통구미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동해지도 배부 치 섬구 모금) 등을 펼친다. **김성우 기자**

<p>“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b>법률사무소 서안</b> <b>유급임무:</b>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031)436-3114 017-535-0685</p>	<p>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b>불교서적총판 운주사</b></p>	<p>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b>금강염주</b>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울이온, 안일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경이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02)723-0909</p>	<p>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b>관불수향</b>        전단향이 그득한 향탕수로 관불,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동원향당        향·조각·공양물 02)3663-6777</p>
---	---	--	--

## 성불 조각각원

www.sun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운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